

순천만국가정원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

美·中 등 24개국 주한 대사들 한자리 모여 녹색선언 4만5천여명 관람객들 개막식 참여...26일까지 진행

지난 10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순천시 시 승격 70주년과 국가정원 지정 5주년을 축하하는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 개막식이 4만5천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의 개막식은 창군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공군 군악대의 사전 공연으로 시작돼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에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해 '세계가 다함께 지구환경에 관심을 갖고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녹색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엘살바도르 대사 ((Milton Alcides MAGANA HERRE RA)는 "순천시의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잘 나타난 행사로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데 힘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순천

시가 세계정원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개막식 공연으로 진행된 '국가스텐'의 축하 무대에서는 하현우의 폭발적인 보컬과 레이저등 특수효과까지 더해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외에도 국가정원 갯벌공연장에서는 러시아 아르츠시 예술단의 러시아 전통춤과 노래 등 공연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고, 동문 상설행사장에서는 '세계문화 플라마켓'이 열려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국가정원을 찾은 시민들은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러시아의 전통 춤과 음악 공연을 모든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다"며 "세계 여러나라의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어 순천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



지난 10일 '정원을 걷다. 세계를 여행하다'를 주제로 개최된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에는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의 주한대사들이 참석해 '세계가 다함께 지구환경에 관심을 갖고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녹색선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는 방안 중에 하나는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다"며 "이번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를 계기로 환경과 정원문화를 함께 공감하고 정원문화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말을 대

신했다.

5월 26일까지 계속되는 '2019 정원 월드투어 페스타'에서는 행사기간동안 세계 16개국(러시아, 인도, 독일, 미국, 멕시코, 태국, 몽골, 중국, 일본, 영국, 터기,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집트, 한국)의 문화를 만나고 즐기는 지구촌 장터로 음식, 특산물, 공예품 등 다양한 세계를 체험하고 맞출 수 있다. /순천=오승택 기자 ost6002@

고흥,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운영
이용객 편의제공·안전사고 예방

고흥군은 13일부터 버스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농어촌버스 안내도우미'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내 도우미 5명이 이용객이 많은 전통시장 장날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요 5개 노선을 경유하는 버스에 탑승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원활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도와주는 사업으로, 13일 녹동 장날을 시작으로 고흥 장날(4, 9일), 녹동 장날(3, 8일), 과역 장날(5, 10일), 동강 장날(1, 6일)에 시행된다.

사업 시행 첫날, 버스를 탑승한 한 어르신은 "그동안 장날에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타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수월하게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며 "안내도우미 서비스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버스 안내 도우미는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군민 불편사항도 빠르게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알리미' 역할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요에 맞춰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버스요금 천원 단일화, 장거리 노선인 고흥-봉래간 좌석버스 운영 등 실질적이고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곡성,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장기발전방향 구체화... 기존 수립된 계획 불합리 점 보완

곡성군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4조에 따르면 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곡성군은 군의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민들의 시급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5월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오는 2020년까지 2년간 용역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재정비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열람 및 공고 등 군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입안 가능

한 제안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비안이 나오면 관련 부서 협의 및 군의회 의견청취,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된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지형도면 고시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곡성군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임을 감안해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주변 여건, 토지 이용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305)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심선섭 기자 sss2634@

"캔·페트병을 현금으로"... 인공지능 수거기 등장

여수시청·이순신광장·여수세계박람회장 등 6곳 설치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여수시 제공

여수시가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나선다.

시는 15일 여수시청, 거북선공원, 여문공원, 이순신광장, 해양공원, 여수세계박

람회장에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를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수거기는 투입된 캔과 페트병을 자동 선별해 압착하고 그 외 품목을 투입하면 수거를 거부하는 자판기 형태의 로

봇이다.

사용 방법은 먼저 회수로봇 화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투입함에 캔과 페트병을 넣는다.

로봇이 폐기물을 인식하고 분류하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다. 슈퍼빈 홈페이지(www.superbin.co.kr/)에 가입 후 포인트 전환을 신청한다.

캔은 한 개당 15포인트, 페트병은 10포인트가 쌓이며, 2천점 이상이면 현금으로 전환해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설치로 쓰레기 감량·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자동수거기 오픈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에 캔·페트병을 가져온 시민 1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장바구니를 증정할 계획이다. /여수=주영남 기자 jyn@

'구례 인재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학사 이전 위한 기금사업비 적립

구례군은 최근 인재육성기금심의회를 개최하고 구례학사 이전을 위한 기금사업비 적립과 농어촌지역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에듀택시 지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구례학사는故 홍원포 박사의 부지를 기부와 향우회장학기금 및 군비를 투입해 1998년에 준공한 기숙사로, 20여 년간 구례출신 대학생 650여명이 이용해 왔다.

그러나, 구례학사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멀고 시설이 노후 돼 이용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런 가운데, 군은 학생 편의 증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이전을 검토하게 됐고, 첫 단계로 인재육성기금으로 이전 사업비를 적립하기로 의결했다. /구례=심건식 기자 sgeonsik@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지역신문발전위원회
Local Press Commission

지역신문을 보면
지역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 지역을 제일 잘 아는 건 '지역신문'입니다.
지역신문을 읽는 당신,
내 고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문구독, 아는만큼 '힘'이 됩니다.

전남도민일보